

'위헌'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제기 남부자만 환급

이의신청 못한 가구 강력 반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던 뒤 정부가 '이의신청을 한 남부자'에게만 돈을 돌려주기로 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 재판소 법·감사원법등에 의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청구소송·행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광주지역

광주 3,332가구 중 856가구만 이의신청 가구당 157만원 끝...정부차원 대책 촉구

남부자 3천332가구 중 25%·7%인 856가구에겐만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것. 시는 환급 대상 가구에 모두 13억5천만원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며, 가구당 평균 157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성실히 납세한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집수자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 매일 "성실납세자만 봉이 된 꼴"이라는 항의전화와 부담금 환급대상·절차 등을 묻

는 문의전화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며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부담금을 낸 사람에게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해주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전의혹 감사원자료 유출 파문

철도청 PC에 남겨 김세호씨 등 입수

감사원이 지난 3월 유전의혹사건과 관련해 철도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벌이면서 감사기록을 철도공사 컴퓨터에 저장했고, 철도공사는 이 자료를 몰래 빼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앞둔 김세호 전 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 감사때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 빼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김세호 전 차관의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서 감사원의 왕

영웅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문답서를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전 차관에게 유입된 이 문건은 왕 전 본부장이 3월 감사원에서 조사받은 내용으로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과 신 전 사장에게 두차례 걸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 관계자는 "감사원 및 철도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문건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철도공사 직원들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월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출장 감사때 감사원측은 철도공사의 컴퓨터를 이용, 왕 전 본부장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했고,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조사내용을 철도공사 직원이 디스켓으로 복사해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필기자 sykim@kwangju.co.kr



제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를, 왼쪽부터 김태호(경남지사), 강현욱(전북지사), 허남식(대구지사), 이인근(경북지사), 박병우(울산시장), 조해령(대구시장), 박준영(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유지" 촉구

영·호남 시·도지사회의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유지와 그린벨트 해제권한 위임등을 촉구했다.

박 시장과 박지사를 비롯 박병우(울산), 허남식(부산), 조해령(대구)시장과 강현욱(전북), 이인근(경북), 김태호(경남) 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31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를 가졌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4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은 ▲국토 균형발전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해 줄 것 ▲국책사업의 신중한 결정과 결정된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 촉구 등이다.

또 ▲8개 시·도와 교류,협력중인 일본자치단체에 대해 미래지향적 발전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 각성 촉구를 ▲한시해안과 관동해 및 한반해안을 연계,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 촉구 등이다. /기현희기자 kihh@kwangju.co.kr

2012 여수엑스포 유치 비상 ⑤ 실패 땐 후유증 심각

정부·道·여수시 긴밀 협조 반드시 '유치축배' 들어야

지난 2002년 12월 3일 모나코에서 열린 BIE(세계박람회사무국) 총회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중국 상하이로 결정되자 여수시민들은 물론 전남도민들까지 허탈감으로 인해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지역민들은 세계박람회 유치실패의 원인이 SOC확충 미흡과 글로벌 아젠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제 등에 있다고 보고 정부와 유치위원회의 무성의한 유치노력을 질타했다.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 여야 의원 33명이 최근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날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라도 의원들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과 지방에 있는 3개의 유치위원회, 국민이 역할을 한 데 모아 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2003년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유치를 대선공약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이같은 행동은 만약 이번에도 세계박

람회 유치를 실패할 경우 엄청난 상실감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두번째 유치실패는 2007년 대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즉 중앙정부는 박람회주변의 도로와 공항 등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해 오는 2007년 BIE 실무단의 현지실사 이전에 주요 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국회는 중앙정부가 차질없이

전남도와 여수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의 유치위원회도 역할분담을 통해 대내외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실 시내버스 퇴출을" 운난실 광주시의원 주장

내년 상반기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는 운송업체의 경영·운송자료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부실 회사의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윤난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회견을 갖고 "2003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운영을 수행한 3개 기관의 손익비교 결과 5천400만원 흑자에서 26억의 적자까지 편차가 심했다"며 "더욱이 위원회가 감증을 위해 요구한 현금·교통카드·승차권 매출액 자료 제출을 운송조합측이 거부해 진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따라 자본이 잠식된 회사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액(연간 120억원·조합측 주장)의 30%를 지출하기로 한데 대해 윤난실 위원장은 "무료 환승은 원가와 무관하며 손실로 보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3개 운영기관 중 2개는 일정기간만을 근거로 연간 손익을 산출한 것이고 업체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준공영제에 대비 경영·운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재산세 충격 완화위해 보유세 인상 10%내로

행정부, 지자체에 지시

올해 토지보 재산세가 작년 대비 연승 인상된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는데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전인 5월31일 고시될 때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18.58%)을 포함하면 평균 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에 2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세인 토지보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 대비 10% 범위내에서 인상이 이뤄지도록 토지세 과표 인상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지자체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올해 토지보 재산세를 고지하기 앞서 8월 초까지 시·군·구 각종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정신차릴려면 아저 밧었다

Advertisement for various services including '양도양수(포괄)공고', '공시 최고', '경리사원 급구', '부동산공매 입찰공고', '산행', and '대선건설 주식회사'.

Advertisement for '제 33기 결산공고' (33rd Financial Statement Announcement) by Kumsong Investment Bank, including a detailed financial tab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dvertisement for '시민문화향수활동 지원사업 공모' (Citizen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Support Project Public Bidding), detailing the purpose, application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Support Committee.